

## [윤리와 사상]

1	④	2	①	3	②	4	③	5	②
6	③	7	③	8	③	9	⑤	10	⑤
11	④	12	⑤	13	③	14	②	15	④
16	④	17	⑤	18	①	19	②	20	⑤

01. 불교의 삶의 태도이다. 만물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자비의 삶을 강조한다.
02. 갑은 흠스, 을은 로크이다.  
흠스는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를 군주에게 양도하는 것이 저의 발생의 원천이라고 본다.
03. 갑은 위정척사, 을은 동학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교적 가치를 국난극복의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다.
04. 스피노자의 주장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신의 존재, 즉 실체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05. 지식의 현금가치를 주장한 제임스이다. 제임스는 형이상적인 신학 교리는 해명 없이도 현금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06.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사덕이 사단을 자주적으로 실천하여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07. 갑은 맹자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항심을 위해 항산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순자는 재화의 공정헌 분배를 위한 예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08. 도가와 갈통의 입장이다. 인위적인 폭력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는 공통점을 제시한다.
09.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공통적으로 행보해지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하고 유덕할 때 행복이 이뤄진다고 보았다.
10. 갑은 스토아, 을은 아퀴나스이다.  
스토아는 필연성을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중시하였고 아퀴나스는 인간의 선들 중에는 동물이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11. 갑은 수정자본주의 을은 신자유주의 병은 마르크스이다.  
신자유주의는 마르크스의 계획경제를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였다.

12. 갑은 칸트, 을은 흄이다.

흄은 이성의 역할은 인정하였지만 이성이 그자체로 도덕적 행위의 원천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13. 갑은 성리학 을은 양명학의 입장이다.

양명학은 이치는 마음 속에 내재한다고 주장한다.

14. 갑은 자유주의, 을은 공화주의이다.

갑은 국가의 가제는 간섭이라 보았고, 을은 자의적 도구로써 법이 작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15. 갑은 의천, 을은 지눌의 주장이다.

을은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정혜쌍수를 주장하였다.

16.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이는 사단은 이가 기에 타서 드러난 감정이라고 본다.

17.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8. 도가의 사상이다.

심재와 좌망으로 감각을 잊고 소요를 즐겨야 한다고 보았다.

19. 갑은 트라시마코스, 을은 플라톤이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20.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강조하는 밀은 고급스럽고 질 높은 쾌락의 추구를 강조한다.